

한국 양악의 뒤편길

2. 박태준.윤극영에서 태동된 동요 창작시대

나 윤 영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양악은 서양찬송가로 시작되어 이상준, 김인식, 백우용 등이 작곡한 '창가'의 보급.애창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창가 중에는 서양찬송가보다는 일본창가의 영향이 더 두드러진 듯한 느낌이 많다.

이 '창가'에 이어 등장한 것이 '동요'이다. 우리나라의 동요는 윤극영 동요 작곡집 제1집 「반달」이 출판된 1926년을 기점으로 삼는 것이 하나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박태준 작곡의 <기러기>외 12곡이 모두 1920년에 작곡되었기 때문이다.

「박태준 작곡집」(1975년, 세광출판사 발행)의 차례를 보면 이 사실이 밝혀져 있다.

물론 박태준의 최초의 동요작곡집 「중중 때때중」은 1929년에야 출판되었기 때문에 윤극영의 작곡집「반달」이 3년이 나 앞선 것처럼 느껴지지만 윤극영의 최초의 동요인 <고드름>은 1924년 8월에 작곡되었으니 박태준의 동요가 이보다 4년 앞선 것임을 알 수 있다.

애국.독립운동의 일환이었던 동요창작운동

박태준, 윤극영, 홍난파, 정순철, 이일내, 박태현 등등의 동요운동은 우리나라의 정서가 담긴 최초의 창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래를 통한 구국.애국.독립운동이었던 것을 알아야 한다.

박태준(朴泰俊, 1900~1986)

박태준은 대구 태생으로서 1920년 평양 송실대학을 졸업하고 1933년에 미국유학을 떠나 1936년에 귀국하여 합창운동을 통해서 교회음악 발전에 크게 공헌했는데, 그의 주옥같은 동요는 대부분이 미국유학을 떠나기 전 대구에서 윤복진(김수향)과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특히 <오빠생각>,<가을바람이지>,<집보는 아기의 노래>(멤멤)는 그의 대표작이며, 이밖에 <사우>(동무생각),<순례자>(님과 함께),<미풍>(서라벌),<소낙비>는 모두 1922년작인데, <사우>를 제외한 3곡은 동요에 속하나 <사우>만은 동요와 가곡의 중간형태인 '서정소곡'(絃情小曲)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동요가 아니 것은 일률적으로 '가곡'에 포함시키는 데에는 별로 이의가 없다.

박태준의 동요가 주로 윤복진(월북작가)의 가사로 작곡되었기 때문에 한동안 원가사로 부를 수 없어 윤석중에 의해 새 가사로 바뀌어 불려지기도 했으나, 이제는 소위 월북작가의 작품이 대부분 해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윤복진의 원가사로만 불려지게 될 것을 기대해 본다.

박태준은 미국유학에서 돌아온 뒤에도 동요를 많이 작곡했으나 8.15해방 후에 나온 <새나라의 어린이>,<어린이 노래(꽃피는 이동산~박목월 작요)>를 제외하고는 별로 명작이 나오지 않았는데, 자신의 말에 의하면 "작곡이론을 모르고 지었을 때에는 좋은 곡이 쏟아져 나왔는데, 작곡이론을 안 후로는 안 나오더라"는 것이었다.

윤극영(尹克榮, 1903 ~ 1988)

윤극영은 <반달>, <고드름>, <귀뚜라미>, <두루미(따오기)> 등 수많은 명작을 남겼다.

윤극영 동요 작곡집 제1집 「반달」에는 <피꼬리>, <흐르는 시내>, <두루미>, <꼬부랑 할머니>, <소금쟁이>, <가을서곡(창가극 「파랑새를 찾아서」 중의 1절)>, <귀뚜라미>, <고드름>, <설날>, <반달>의 10곡이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고드름>, <반달>, <설날>, <귀뚜라미>, <두루미>는 모두 1924년 작이다. 특히 <반달>, <두루미>는 아마 영원불멸의 명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윤극영이 1921년 일본에 유학을 떠나 1923년에 귀국해서 방정환과 함께 '색동회'를 조직했고, 1924년에 소년.소녀합창단 '다알리아회'를 조직하여 동요창작 보급에 힘썼으며, 1926년 북간도로 건너가서 활동하다가 1947년에 서울에 돌아와 윤석중과 함께 '노래동무회'를 조직했는데, 이때부터 작곡된 <나란히 나란히>, <길조심>, <봄편지>, <과리>, <봄이 와요>, <자장가>, <구름> 등등은 참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담백 담긴 명곡이라고 생각된다.

<반달>은 작곡자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곡조가 먼저 되었고, 다음에 가사를 붙인 것이라고 하는데, 초창기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던 일이므로 새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작곡가 자신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곡의 반주곡을 보면 1도화음(도.미.솔)의 제2전위로 시작된 것이 눈에 띄는데 이것도 그가 본래 바이올린과 성악 전곡이었기 때문에 화성학 이론에 좀 어두웠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혹자는 윤극영을 "반주도 못 붙이는 작곡가니, 멜로디밖에 못 쓰는 작곡가니"하고 비난하는데, 반주는 화성학을 공부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도리어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서 멜로디의 천재는 윤극영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그의 멜로디는 리듬이 살아있고, 음진행이 독특하며, 3마디 또는 5마디 구조의 것이 많은데 이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가장 새로운 스타일의 우리나라 동요라고 말할 수 있다.

홍난파(洪蘭波, 1898 ~ 1941)

홍난파는 우리나라 최초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그 옛날에 멘델스존, 부르흐의 협주곡 전악장을 연주했고, 1933년에 바이올린 독주곡 (애수의 조선, 로맨스, 하야의 성군, 동양풍 무곡)을 비롯하여 관현악 조곡, 가곡 등등을 작곡했다. 그의 동요가운데 대표작은 <고향의 봄>인데, 이것은 1927년작이다. 그는 중앙보육학교(현 중앙대학교 전신) 교수 재직 때에 집중적으로 동요작곡을 하여 1929년에 「조선동요100곡집 상편」을 출판했고, 1933년에 「조선동요100곡집 하편」을 출판했는데, 이중에 <달마중>, <고향의 봄>, <하모니카>, <낮에 나온 반달>, <풍당풍당>-(이상 상편), <여름>, <구름>, <햇빛은 짹짹>, <자장노래>-(이상 하편) 등은 지금도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이다.

그의 대표작은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여름>일 것이나, 이 밖에도 <피리>, <바닷가에서>는 명작 중에도 명작인데, 특히 <바닷가에서(윤복진 작요)>는 이제 해금이 되었으니 앞으로 많이 불려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의 「조선동요100곡집 상편」에 들어있는 <할미꽃>은 윤극영 원작.홍난파 편곡으로 밝혀져 있는데, 자신의 작곡이 아닌 것을 어째서 넣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윤극영은 자신보다 5년 후배이지만 동요작가로는 선배가 되는 사이여서 -----말하자면 우정의 표시로 특별히 삽입한 것이 아닐런지.....

그의 동요곡 중에는 같은 가사에 의한 작곡(별곡)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서로 경쟁하는 뜻에서 고의로 작곡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본다. 갑자기 많은 곡을 쓰다보니 마땅히 가사가 없어서 남이 작곡한 가사에 새로 작곡한 것



일 것이다. 예를들어 <봄편지>(윤극영 작곡), <오빠생각>(박태준 작곡), <고부랑 할머니>(윤극영 작곡), <눈.꽃.새>(권태호 작곡)는 거의 불려지지 않고 있고, <고향의 봄>(이일내 작곡), <햇빛은 짹짹>(박태준 작곡)은 흥난파의 작품만이 즐겨 불려지고 있다. 다만 <밤 한톨이 떡떼굴>은 박태준과 흥난파의 경작(競作)(?) 에 있어서 박태준의 곡이 더 매력이 있어 보인다.

정순철(鄭淳哲, 1901 ~ 1950 납북)

정순철은 윤극영과 함께 '색동회' 동인으로서 1929년에 정순철 동요작곡집 제1집 「갈넙피리」를 발행했는데, 여기에는 <우리 애기 행진곡(짜짜궁)>을 비롯해서 9곡이 들어 있으며, 모두 멜로디뿐이고 반주는 없다. 그의 대표작은 물론 <우리 애기 행진곡>이지만, 이밖에도 <갈넙피리>는 명작에 속한다고 나는 생각하며, <여름비>, <늙은 잠자리>, <나무님 배> 등도 아름다운 곡이다.

「조선동요 백곡집 상권」(1946년, 조선아동문화협회발행)에 의하면 <봄>, <새나라의 어린이>, <시골밤>, <아기별>, <어깨동무>, <옛이야기>, <진달래>가 들어있는데, 거의 불려지지 않으며 <졸업가>만이 지금도 애창되고 있다.

정순철은 작품이 너무도 적은데다가 짧은 곡이 비교적 많으므로 유치원 동요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갈넙피리>는 8마디의 짧은 곡이긴 하나 서정적이고도 말할 수 있다.

<갈넙피리>는 8마디의 짧은 곡이긴 하나 서정적이고도 한국적이다. 정순철과 윤극영의 공통점은 멜로디뿐이고 반주곡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이일내(李一來, 1903 ~ 1978)

이일내의 대표작은 <산토끼>이다. 1938년에 「이일내 조선아동작곡집」이 발행되었는데, 여기에는 <산토끼>외 20곡이 들어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곡은 <산토끼>, <시편 23>이며, 이밖에도 <노고지리>, <외딴집>은 좋은 곡이다. 이일내는 위의 작곡집에 실린 21곡중에서 13곡이 자신의 작사에 의한 곡이다.

이일내는 위의 작곡집에 실린 21곡중에서 13곡이 자신의 작사에 의한 곡이다. 또한 그는 연희전문 재학시절에 흥난파와 함께 현악4중주를 했다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고향>, <고향의 봄.....>(이원수 작요)과 <오빠생각>(최순애 작요)은 전혀 불려지지 않는다.

그의 작곡집은 영문가사로 번역되었고, 삽화까지 들어있어 우리나라의 작곡집 중에서는 가장 호화판의 출판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태현(朴泰鉉, 1907 ~ 1993)

박태현의 대표작은 <누가 누가 잠자나>, <산바람 강바람>, <봄맞이 가자>, <나팔 불어요>, <보리피리>, <고향생각>, <빨래(우리 아기 빨래)>일 것이다.

나는 이 중에서도 <빨래>가 그의 최대 명작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첼로가 전공이었기 때문에 멜로디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것이 비교적 많다.

<보리피리>, <고향생각>은 매우 아름다운 곡이다.

그는 1937년에 「박태현 동요가곡집 제1집」을, 1947년에 「박태현 동요작곡집 제2집 '어린이 노래책」을, 1959년에 「박태현 동요100곡집 첫째권」을 출판했다.

나는 중앙고보 1학년때 음악시간에 김형준 선생(봉선화 작사자)에게 <고향생각----



(박태현 작곡)을 배웠는데, 그 이래로 이 노래를 가장 즐겨 불렀다.

〈빨래〉는 원래 〈우리 아기 빨래〉로서 「박태준 가요곡집 '물새 발자욱'에 들어있는----윤복진 작사의 것인데, 나는 박태현의 곡을 가장 높이 평가한다. 그런 의미에서 〈빨래〉를 그의 대표작으로 생각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음악가이자 화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즉 그는 1989년에 「제5회 박태현 유화전」을 가진 바 있으니 말이다.

이 밖에도 김성도(金聖度),유기흥(柳其興),이흥렬(李興烈),김성태(金聖泰),김대현(金大賢),장수철(張壽哲),박재훈(朴在勳),윤용하(尹龍河),나운영(羅運榮),김규환(金奎桓),권길상(權吉相),손대업(孫大業),안병원(安丙元),정세문(鄭世文),이계석(李啓奭),김공선(金公善),한용희(韓龍熙),이수인(李秀仁) 등등(무순)이 동요 작곡 활동을 활발히 했는데 이에 관해서는 추후에 다루기로 한다.

끝으로 '창가'에 이어 번역가사에 의한 외국동요에서 탈피하여 우리 정서가 깃든 '창작동요'가 1902년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드디어 1929년에 「홍난파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정순철 동요작곡집 제1집 '갈넙피리」, 「박태준 동요작곡집 '중중 때때중」 등이 쏟아져 나왔으니, 1920년과 더불어 1929년은 '한국양악 100년 야사'에 있어서 길이길이 기억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며, 아울러 '우리나라 동요음악사'는 1926년을 기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1920년으로 수정돼야 마땅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기러기〉, 〈가을바람이지〉, 〈꼬부랑 둔덕〉, 〈고기잡이 할아버지〉, 〈골목길〉, 〈꽃밭〉, 〈나비와 잠자리〉, 〈내 방패연〉, 〈눈꽃〉, 〈눈이오는 밤〉, 〈돌아오는 배〉, 〈꽃봉투〉, 〈오줌싸기 똥싸기〉가 모두 1920년작이니 말이다.